

익산시, 국내복귀기업 유치 '물꼬'

하이주얼, 익산 제3산단 패션단지 임대형 공장 투자협약 체결… 신규 고용창출 기대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19일 (주)하이주얼과 익산 제3산업단지 패션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익산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현율 익산시장, 방상명, 한상규 (주)하이주얼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하이주얼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3산업단지 내 패션단지에 임대형 공장이 준공되는 7월정도 입주할 계획이며, 약 5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현재 청도에 소재한 (주)하이주얼은 2001년 창립하여, 제이크루(J.crew), 메이시스(Macy's) 등 중고가 이상의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 및 백화점에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패션 주얼리 제품을 OEM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연간 수출액은 2016년 기준 180억 원을 달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19일 (주)하이주얼과 익산 제3산업단지 패션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국제 창의공학설계 경진대회'

군산대 토폭공학과 '친환경 에너지 교량' 금상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 야마구치 공과대학 토키와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 5차 CEDC & ICIARE'에서 군산대학교 토폭공학과 장한국, 조동연, 서재민, 김동원 학생의 '친환경 에너지 교량'이 금상을 수상했다.

또한 군산대 전자공학과 임지애, 소재원 학생의 '스마트 미러'와 기계자동화공학과 전효녕, 임대홍 학생의 '인공지능 기반 딥러닝 자율주행 자동차', 정보통신공학과 서동호, 염정철, 최준영 학생의 '충돌방지 위한 자전거 후미등', 전기공학과 박현우, 이상현, 김동현 학생의 '스마트 링거' 등 4팀이 동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CEDC(Creative Engineering Design Competition) & ICIARE(Innovation Application Research and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는 한국, 중국, 일본의 3~4학년 대학생들이 캡스톤디자인 과정을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 제작된 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영어로 발표해 참가국의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평가 받는 국제 창의공학설계 경진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일본 야마구치대학, 중국 장수대학교 및 대련공대, 충청이공대학, 한국의 군산대학교, 충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원대학교, 인제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 총 11개 대학에서 11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참가학생들은 3일간 작품 발표, 현장조사 및 제품시연을 통해 스스로 작품을 설계·제작해 볼으로써 창의성, 실무능력, 팀워크 능력, 리더십 등을 키우고, 영어발표를 통한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대학교는 2013년부터 매년 3개국에서 순회 개최하는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LINC+사업단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CEDC&ICIARE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학생역량증대를 통해 국제 캡스톤디자인 디자인에 기여하는 문제 해결형 Project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군산=장양원 기자

해외관광객 유치 위한 잰걸음

익산시-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 관광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회장 한무량)과 손잡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는 19일 익산시청 홍보관에서 익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익산의 관광자원을 공동 홍보하고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이 해제되어 중국인 단체관광객 방문객 수가 종전의 수준으로 회복 중이고 동남아 관광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여행업체와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익산시의 발빠른 노력이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약에 대한 기대감을 증명하는 듯 이날 행사에는 한국 외식업중앙회 익산지회, 한국소비자중앙회 익산시회, 익산관광두레 등 관광 관련 민간단체들이

참가해 관광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기로 해 의미를 더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내 최대의 여행사 하나투어에 이어 130여 중화권 전담 여행사 협회와 발빠른 업무 협약을 체결해 익산관광의 마케팅 틀을 구축하고 저평가되었던 익산 관광 지원을 상품화하는데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융복합 산업인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의 안정, 도시재생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관광마케팅을 통한 익산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며 "관광객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중점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는 중국·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내 여행사의 상호발전과 교류를 위해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30여개 여행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군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명장·우수향토기업 인증서 수여

익산시는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익산시 명장' 및 '익산시 우수향토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익산시 명장은 섬유부문 조순희씨, 이·미용부문 강정희씨이며, 익산시 우수향토기업에는 (주)대성메디칼, (유)성신석재, (유)오리엔트(주)이수종 합성수사가 각각 선정됐다.

익산시 명장에게는 인증현관과 인증서가 수여되고 개발장려금 지원, 시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에 등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익산시 우수향토기업에게는 인증현관 및 인증서 수여, 익산시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시 0.5% 추가 이자보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익산시 명장 및 익산시 우수향토기업을 배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승려기술자와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익산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익산시 우수향토기업을 2016년부터 익산시 명장을 선정하여 기업인과 근로자를 격려하고 지역승려기술자의 자긍심을 높여왔다.

/군산=장양원 기자

군산대 나의균 총장, 도내 고교 방문 재능기부 특강

군산대학교 나의균 총장이 도내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재능기부 특강을 실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8일 이어여고를 시작으로 19일 전주영성고등학교 20일 군산고등학교 27일 아리고등학교를 방문해 800여명의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성공적인 인생 설계를 위한 꿈! 비전 설계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나 총

장은 고교 시절 경험담을 토대로 자기에게 적합한 꿈을 찾고 비전을 설정하는 방법과 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덕목 등을 소개한다.

나의균 총장은 매년 도내 고등학교 순회 재능기부 특강을 통해 바람직한 비전 설계를 위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원
나눔이 희망입니다.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